

영광교육지원청, 다문화 예술동아리 '락(樂)뮤(Musical)'

5·18 40주년 기념 공연 '다시, 봄', 비대면 공연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 호흡 맞춰

예술적 감수성 키워가는 학생 뮤지컬 동아리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허호)은 29일 전년의 빛 영광 다문화 학생 예술동아리 '락뮤'의 '다시, 봄' 공연을 실시하였다.

'다시 봄'은 락뮤의 제6회 정기공연이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공연이다.

영광군과 전라남도교육청의 지원으로 2015년 창단된 '락뮤'는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일반 학생들이 함께 호흡을 맞춰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가는 학생 뮤지컬 동아리이며, 올해로 6회

째를 맞이하고 있다.

락뮤는 2018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나비의 꿈'과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여 준비한 '영웅이 된 소녀 유관순' 공연을 선보여 큰 찬사를 받았으며, 이번에는 80년 5월 광주의 아픔을 기억하고 널리 알리고 싶어하는 열망을 담아 '다시, 봄' 공연을 준비하였다.

2020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어렵게 연습을 이어온

'다시, 봄'은 비대면 공연으로 실시되었으며,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를 통해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님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 영상은 추후 5·18 계기교육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튜브 '영광교육지원청'에 탑재할 예정이다.

2019년 유관순에 이어 2020년 주인공 현미 역할에 맡아 연기한 허재원(연산중2) 학생은 '뮤지컬을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허호 교육장은 "80년 5월의 아픔이 뮤지컬로 승화되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감격스러움이 느껴졌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연을 준비해 온 학생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학생들이 뮤지컬을 매개로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더욱 지원



영광=서희권기자

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흥 백양초, 학생자치회 주관 독서골든벨

도서위원회 중심으로 자발적인 활동 계획 세워 추진한 행사

고흥 백양초등학교(교장 남화경)는 29일 백양초 도서관에서 학생자치 도서위원회 주관으로 학년군별 독서골든벨 대회를 진행하였다.

도서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백양초의 독서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도서부 부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책을 선정하고 문제를 내는 등 자발적인 활동 계획을 세워 추진한 행사였다.

각 학년군별로 어떤 내용이 나올까 집중하며 문제를 푸는 가운데 최후의 1인을 가리기 위해 마지막 문제까지 등장하였으나 모두가 열심히 책을 읽은 까닭에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 공동 우승자로 마무리 짓는 학년도 있을 정도로 열기는 뜨거웠다.

도서부장인 6학년 김승빈 학생은 "준비 과정이 힘들었다. 처음에는 책을 읽고 그림그리자고 했다가 의견 차이로 골든벨로 바꾸는 과

정도 어려웠지만 책을 읽고 문제를 만드는 것이 더 어려웠다. 내가 읽어야 할 책도 있는데 문제 내느라 집중하지 못해 빨리 탈락해서 아쉽기도 하지만 잘 끝내서 후련하고 기분이 좋다."고 하였다.

골든벨 행사 홍보 포스터를 비롯해 전교생에게 줄 참가 상품으로 직접 책갈피를 만들고 상품으로 도서를 준비하는 도서부원들의 작지만 큰 마음 덕분에 학생들은 독서에 대한 재미와 즐거움도 느낄 수 있었다.

학생들을 믿고 더디지만 자발적으로 믿고 갈 수 있도록 뒤에서 힘껏 도와주신 도서위원회 담당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를 계기로 백양초 학생들의 올바른 독서 습관이 정착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기자

함평 영화학교, '스마트교육 우수학교' 선정

소프트웨어교육 위한 교육 인프라·체계적인 교육과정 구축

함평 영화학교(교장 전승주)는 최근 전라남도교육청 스마트학교 우수학교 평가에서 학교 운영 사례의 우수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스마트교육 우수학교로 선정되었다.

29일 함평영화학교에 따르면 2017년부터 SW선도학교를 운영하며 정규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년제, 방과후 프로그램 등 학교 교육과정 SW 및 AI교육을 편성하여 소프트웨어교육을 위한 교육 인프라와 체계적인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구축해 나갔다.

또한 SW페스티벌, 스마트팜, 희망학교SW교실, 삼성 주니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내에서 실시하여 기본교육과정 속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적합한

SW·AI교육 등을 제공하여 컴퓨팅사고력을 향상시켜 소프트웨어 학습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다양한 SW교육을 제공하였다.

선도학교 운영을 토대로 학생의 컴퓨팅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방안을 계속하여 연구하고 스마트교육 우수 학교로 선정된 만큼 다양한 경로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정용 SW선도학교 담당교사는 "SW교육 활성화를 위해 선도학교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기자



광주송정도서관, 초등학생 겨울방학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우리집 메이커 교실' 온라인으로 진행

광주송정도서관이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메이커 교육 프로그램 '우리집 메이커 교실'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4차 산업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고, ▲프로그래밍 ▲3D프린팅 및 3D

모델링 ▲가상현실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강의는 온라인 화상강의 프로그램(Zoom)을 이용해 각 분야별로 오는 2021년 2월 1~5일 5일 동안 진행되며, 교육 키트 및 수업 결과물은 신청자 각 가정에 택배로 배송된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운영되며, 수강신청은 오는 2021년 1월4~15일 광주송정도서관 홈페이지(<http://lib.gen.go.kr/songjung>)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면 된다.

광주송정도서관 추신미 관장은 "이번 방학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4차 산업기술을 비롯한 메이커 교육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인호기자

